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 '세계 최고' LNG선 기술, 중형 조선사에 이전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중형 조선사에 LNG선 건조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LNG선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LNG선 분야의 시장 독점 가능성을 해소하라고 주문한데 따른 조치라고 보도됨. (한국경제)

KAI,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유무인 복합운영체계 협력 MOU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일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LTD.)과 유무인 복합운영체계(MUM-T·Manned-Unmanned-Teaming)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으로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에 IAI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탑재해 유·무인 복합운영체계를 공동 시험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조선비즈)

Seaspan inks order for up to a dozen neo-panamax boxships

Seaspan이 최대 12척의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발주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됨. 15,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과 12,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확정발주하고 15,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의 옵션분을 확보한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스크러버 탑재형이며 2023년까지 인도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Rio Tinto, 중국에 8억달러 이상 발주

세계 2위 광산 업체 Rio Tinto가 LNG-fuelled 뉴캐슬막스 벌크선 12척의 건조 우선협상자로 중국의 2개 조선사를 선정했다고 보도됨. 총 발주 규모는 8.04억달러이고 Qingdao Beihai Shipbuilding Heavy Industry와 New Times Shipbuilding이 각각 3+3척씩을 건조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Drilling giant reaches Chapter 11 milestone

Valaris가 미 파산법원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Chapter 11상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고 있는 드릴십 2건에 대해서는 인도기한을 2023년 12월까지로 수정 합의했다고 보도됨. 2척의 드릴십에 대한 잔여대금은 각각 1.19억달러, 2.18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Upstream)

Saudi Aramco awards \$300m-plus offshore deal to Middle East player

Aramco가 3억달러 규모의 해양 EPC공사를 NPCC(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rporation)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글로벌 EPC업체들 간의 LTA(Long-Term Agreement) 계약의 일환이라고 보도됨. (Upstream)